



오늘의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오늘의 주요 기사

2-3 청소년순 비전트립
4 사임인사 / 부임인사

5 생명사랑 이웃사랑
6 교회사용설명서

7 십자말풀이
8 유아순 교재 개발

주님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예장통합)에 속해 있습니다. 예장통합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창원에는 양곡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겔 37:14, 행 9:31)”을 주제로 제109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109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의 취임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성령의 능력 의지해 부흥 위해 노력할 것

첫째,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 많음을 인정하고, 저부터, 여기에 계신 총대님들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 이전에 눈물과 참회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부흥을 외치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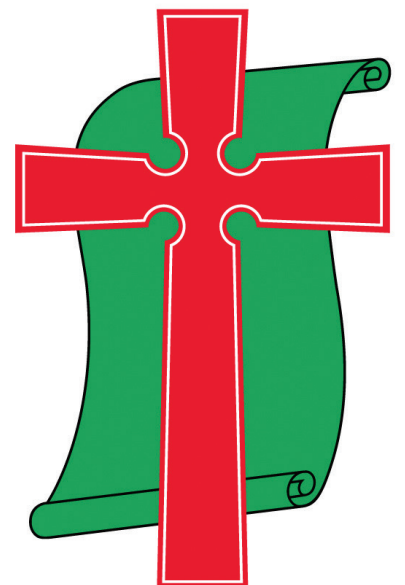
둘째,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09회기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겔37:14, 행9:31)’로 정했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에스겔처럼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한국교회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박해받던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할 때, 이 어려운 난관을 반드시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더 이상 분열과 반목과 비판을 멈추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되고, 바울도 헤어졌던 마가를 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는 분열될 때 쇠락했고, 하나될 때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은 한국교회가 선교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이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원하지 않았고, 미래의 노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하도록 오직 복음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것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오직 복음’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총대님들부터 함께 하십시오. 100년 후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오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여서, 14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분열하고 갈라진 한반도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비전트립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 이야기

마할 나 마할 끼따, 팡이노온

마할 나 마할 끼따~, 팡이노온~ ♪♪ 필리핀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청소년팀에서 흥얼거리며 준비한 찬양은 우리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나의 예수님, 주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청소년실에서 필리핀 몬탈반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이유는 가사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몬탈반의 청소년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소년실의 해외선교 비전트립은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고, 마쳤습니다.

청소년이 선교를 간다.

청소년 24명이 따스한 3월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8월 4일(일) ~ 8일(목)까지 진행되는 해외선교 비전트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선교 공동체의 소속감을 만들어 갔습니다. 선교 교육을 이론으로 공부하고, 선교지인 필리핀에 대한 언어, 역사, 문화도 공부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활동할 프로그램과 찬양, 그리고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에 필요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바지', '청소년 비전트립을 위한 바자회 지금 바로'라는 이름과 뜻으로 바자회도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덕분에 선교를 위한 기금과 기도, 그리고 응원이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8월 4일(일)부터 8월 8일(목)까지 4박 5일간의 선교일정이었지만, 가는 날과 오는 날을 제외하면 온전히 주어진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주어진 3일 동안은 현지 필리핀 중학생,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합 수련회(Sparkle 수련회 제목)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24명과 필리핀 친구들 60명은 서로 섞여서 연합된 10개의 조로 나누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은 '환대'라는 주제로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둘째 날은 '연합'이라는 주제로 수중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현지 피딩사역(쓰레기산, 마을, 교회 성도 가정집 30가정)을 다녀왔으며, 한국 팀과 필리핀팀이 각자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고, 연합 예배를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 계획과 준비를 했었지만, 그 모든 상황과 선교를 만들어 갔던 것은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교는 놀라웠고, 신비로웠고,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얼마나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찬양 '마할 나 마할 끼따, 팡이노온(나의 예수님, 주 사랑합니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선교현장이었습니다.

백양선 전도사 / 청소년실



5일 저녁 피드백 타임



5일 팀 빌딩 시간



청소년 필리핀 해외 비전트립 _ 2024 선교 포스터



청소년 필리핀 해외 비전트립 _ 2024 현지 선교 포스터



청소년실 비전트립 예매 영상



청소년실 비전트립 스케치 영상

청소년
비전트립

청소년이 선교를 말하다

66 선교 교육을 하기 전 저는 '선교' 라는 단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무턱대고 비전트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필리핀에 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가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는 것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여러 번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참여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선교는 우리가 직접 준비하는 입장이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학생1

66 한국을 벗어나 5일을 보내는 것도, 필리핀 친구들과 대화하고 지내는 것도,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끼는 교훈도 많았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 선교인 만큼 작년보다 '더 잘 하고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대로 조금은 성취한 것 같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학생2

66 피딩사역으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방문을 했을 때에 저희가 한국 찬양을 할 때마다 박수치며 따라해 주시고, 끝나면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말과 생각이 엄청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는 것이 진짜 제일 놀라웠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3

66 필리핀으로 선교 활동을 간다고했을 때 '아 내가 필리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번 선교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도착하고 필리핀 친구들과 만났을 때 필리핀 친구들이 저희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같이 놀아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필리핀 친구들과 밥도 먹고 같이 미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서로 손으로 하는 게임도 알려 주면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교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학생4

66 해외선교에는 처음 가보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고, 과연 내가 잘 할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필리핀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었고, 가서 무엇을 하기보다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온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 중에 쓰레기산에서는 정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동파리가 정말 많았고, 쓰레기의 악취가 온 곳에 퍼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복음과 구원의 손길이 닿아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친구들이라는 게 느껴졌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 본받고 싶었습니다. 쓰레기산에서 내려갈 때 인사해주고 밝게 웃어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주일학교 친구들과랑 함께 즐겁게 놀았던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같이 노는 것이라고 몸소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번 선교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5



5일 연합 조별 식사



5일 피딩 사역 준비(마을)



6일 쉬는 시간



6일 연합 조별 식사



7일 피딩 사역 쓰레기산2



7일 피딩 사역 가정 방문



7일 피딩 사역 쓰레기산1



7일 수요 예배후

사임인사

부르심을 따라 가락동교회로

안녕하세요. 황바울 목사입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교회에 었그제 부임한 것 같은데 벌써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사역을 시작했던 순간과 코로나19로 힘겹게 섬겼던 시간들, 그리고 합침함함하며 섬겼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락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황바울 목사



사임인사

더 큰 사랑과 위로와 힘을 건네 받고 갑니다

주님의교회라는 좋은 공동체, 특별히 청소년숲 팝콘트리 중등부라는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대와 설렘, 떨리는 마음을 가득 안고, 교문을 들어섰던 첫걸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청소년숲 교역자들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민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이후 완전히 대면 예배를 회복되면서 팝콘트리 중등부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음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교회 공동체, 특별히 청소년숲 팝콘트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숲 공동체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러 왔는데, 더 큰 사랑과 위로와 힘을 건네받고 갑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목사로,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최혜원 목사 / 청소년숲



부임인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



샬롬~ 5교구를 담당하여 섬기게 된 박준범 목사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전임전도사와 전임목사를 거치며 주님의교회와 함께 걸었고, 이제 5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도 크고 넘치지만, 장차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기대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고, 기도하며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가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범 목사 / 5교구

(사)섬김과 나눔, 여전도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한 우리의 손과 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된 주민에게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인 전4종 세트와 떡과 식혜를 전달한 2024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명절음식 나눔행사는 (사)섬김과 나눔, 주님의 교회 여전도회가 주최하고, (사)섬김과 나눔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여 공동으로 3년째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12일에는 (사)섬김과 나눔과 함께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2024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추석 명절음식 나눔행사’가 있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행사는 마천·위례 지역의 독거 어르신, 탈북민 등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나누는 행사이다. 송편을 비롯한 여러 물품 중 여전도회는 네 가지의 전을 준비하여 총 350개의 도시락을 만드는 작업을 담당했다. 이에 앞서 9월 11일에는 여전도회 연합모임 후 오후 2시부터 재료 준비 작업을 했는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1시간여 만에 여러 가지 작업이 모두 종료되었다.

12일 당일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여러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총 87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오전 6시~12시까지로 예정되었던 작업이 오전 8시 20분경에 모두 끝났다. 12시까지라고 생각해 조금 늦게 오던 회원들이 이미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중에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남선교회에서도 일찍부터 사진 촬영과 재료 운반 등을 도와주며 함께 했다.

전을 부치는 현장에서는 숙련된 솜씨들을 발휘하여 손발을 맞추니, 옛말의 ‘소도 잡겠다!’는 표현이 아주 딱 맞는 날이었다. 날씨가 좋으면 중정을 이용하려 했으나 계속 비가 오는 탓에 식당과 주방의 한정된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일하는 정겨움이 있었다. 함께 일하면서 그동안 멀리서 바라보던 회원들과 가까이에서 정겹게 담소를 나누며 일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을 체험하는 듯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계속 비가 쏟아짐에도 많은 회원이 참여하였고, 마음은 간절하나 여

러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아쉬운 마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며, 그 마음으로 드린 간절한 중보기도의 힘으로 기쁘고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다.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난 덕분에 모두들 여유로운 마음으로 소식당에서 모여 앉아, 4여전도회가 준비한 어묵탕을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평소에는 직장 출근으로 인해 여전도회 월례회에 참석하지 못하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반가웠고, 출근을 앞둔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어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구나 올해 여전도회에 등록하여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새로운 회원들의 활약이 돋보였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는 모습이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다.

멀리 가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섬김과 나눔,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회원들의 인사가 많았다.

서로 격려하며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과 기도로 함께한 회원들 모두의 협력으로 후반기의 큰 사역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여전도회의 수고로 홀로이 외롭게 보내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리라 여기며, 사람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을 더욱 활발히 움직이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신영숙 권사 / 여전도회 연합회장



교회사용설명서

기도회 참여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기도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기도회란,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위한 모임이겠습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는 많은 공식, 비공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공식 기도회란 기도회 모임이 규칙적, 반복적이며 담당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회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교회의 공식 기도회를 매월 기준 빠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도회 (담당 목사)	때와 곳	주제	순서	참석자 (보통 참석자 수)	담당 목사가 전하는 말씀
새벽헌신자 기도회 (박주영 목사)	매월 첫째 토요일 06:30 ~ 07:30 3층 초등부실	개인, 교회, 나라와 민족	찬양, 설교, 기도회	새벽헌신자 및 누구나 (30-50명)	기본적으로 새벽기도를 작성하며 헌신한 이들을 위한 자리이지만 누구나 오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로 하루를 깨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셔서 새벽기도, 그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소원합니다.
통일을 여는 기도회 (차승천 목사)	매월 첫번째 주일 14:15 ~ 15:00 1층 제3집회실	통일선교, 통일선교위원회 각 부서 기도 제목	찬양, 대표기도, 말씀, 기도회	통일선교위원회 회원 및 통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30-40명)	하나님께서 앞으로 통일을 열어가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의 소원 통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루 속히 활짝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 축복 새벽기도회 (한시영 목사)	매월 둘째 토요일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여름사역 기간 제외) 05:20 ~ 06:20 대예배실	자녀와 다음 세대, 유유청청을 위한 기도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송, 설교, 공동기도문,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축복송 및 축도	유유청 아이들 · 부모 · 조부모 및 다음세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누구나 (100명)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개근자(자녀들 대상) 시상 중입니다.
중보기도부 임마누엘 기도회 (박주영 목사)	매월 둘째 토요일 06:30 ~ 07:30 5층 1집회실	개인, 가정과 직장	찬양, 말씀, 기도회	중보기도부 임마누엘팀 및 누구나 (10명)	중보기도부 산하 직장인들 기도팀인 임마누엘팀의 기도회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며 일과 사람에 지친 우리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오니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음악위원회 기도회 (이대혁 목사)	썩수달 셋째 토요일 06:30 ~ 07:30 3층 초등부실	각 찬양대, 주오오케스트라 전체와 개인 기도제목,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설교, 찬양, 기도	음악위원회 소속 성도, 찬양대원, 주오 단원 (20-30명)	음악위원회 소속 각 찬양대와 주오오케스트라의 전체 기도제목과 개인기도제목을 찬양대장과 주오 단장 또는 지도권사가 취합하여 담당목사에게 전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회 후 가능한 분들이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동하여 식탁교제를 나누며, 각 찬양대장이 돌아가면서 대접합니다.
블레싱 남성기도모임 (이대혁 목사)	매달 넷째 토요일 (1,7월 제외) 07:00 ~ 08:00 1층 소예배실	설교 주제, 남선교회와 안수집사회, 가장의 기도제목,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찬양, 설교, 기도	누구나(여성 포함) (30명)	주로 남선교회의 회원들이 모임이지만 여성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직장에서는 일터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만들, 또한 가정의 경제, 관계 문제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회 후 떡이나 빵과 커피를 함께하며 식탁교제를 나눕니다.
해외선교 위원회 선교기도모임 (박민규 목사)	매월 넷째 주일 12:50 ~ 14:00 1층 소예배실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	찬양, 말씀나눔, 지역별 선교사 기도제목 나눔, 합심기도, 다른 지역별 선교사 기도제목 나눔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40-50명)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모두어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을 위해, 현지 성도들과 주민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식사 대용 간식을 기도회 전에 미리 제공합니다. 3부 예배 후 기도회 시작 전까지 오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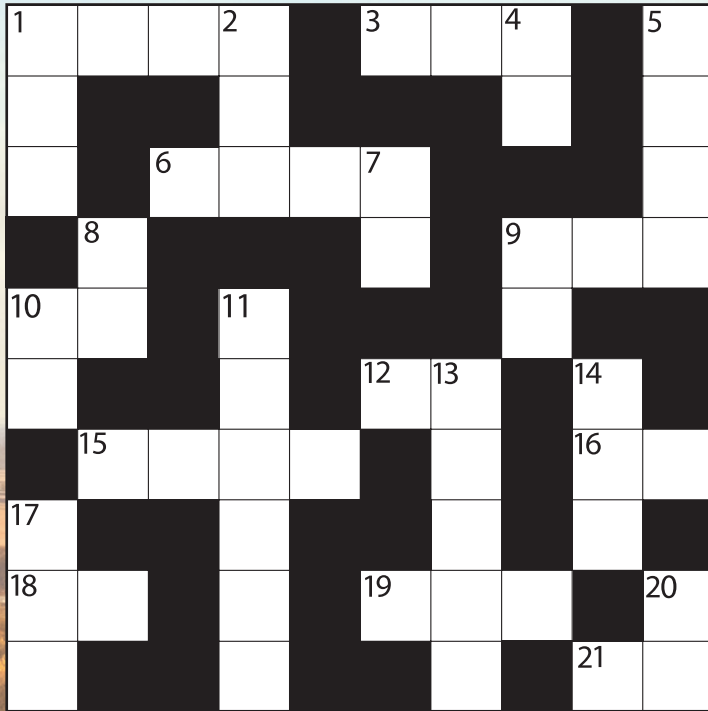
기도회는 기도회마다 준비된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대부분 미리 준비할 것은 없으나, 되도록 경건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회는 또한 기도만 마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 전후 참석한 성도들 간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미가 편

이번 호는 <미가> 편입니다. <미가>의 저자는 모레셋 사람 미가인데, 훗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9호 '요나' 편 정답



가로 힌트

1.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수님은 “선한 ○○○○ 사람의 비유” 를 들어 네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미 1:1)
3. 무엇인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 과일 가게에 가면 작은 소쿠리에 자두나 살구 같은 작은 과일들을 쌓아놓고 이런 단위로 팔기도 한다. (미 3:12)
6.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아버지였다. (미 1:1)
9. 주로 걸을 때 짚는 막대기. 평지에서는 주로 노인들이 쓰지만, 등산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미 7:14)
10. 어떤 사람의 윗대 어른들을 두루 부르는 말. 반대말은 ‘후손’, ‘자손’ 이다. (미 7:20)
12.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활동했다. (미 1:1)
15. ‘떡집’이라는 의미의 지명. 예루살렘 남쪽 8km 거리에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미 5:2)
16.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두루 부르는 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모든 세계를 말한다. 한국의 록밴드 들국화 제1집에는 <그것만이 내 ○○>이란 곡이 수록되었다. (미 7:2)
18. 아프리카 사바나에 서식하는 아주 큰 새. 아기공룡 둘리 친구 또치가 이 새다. (미 1:8)
19. 유다 지파의 성읍. 선지자 엘리에셀의 고향이다. (미 1:15)
21. 가을걷이.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미 6:15)

세로 힌트

2. 유다의 왕.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다. (미 1:1)
4. 어떤 것의 기본이나 토대가 되는 것.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가장 아래쪽에서 무게를 받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미 1:6)
5. 포도 알들이 한 꼭지 아래 한데 달려 있는 모양. 날것으로 먹을 때는 보통 이 상태로 씻어 접시에 담는다. (미 7:1)
7.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압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미 2:7)
8. 하나님이 아닌 예배의 대상. 또는 그 모습을 따라 만든 형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 5:13)
9. 땅의 경계. 때로 그 경계 안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 7:11)
10. 갈보거나 비웃고 놀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미 2:4)
11. 블레셋의 성읍. ‘티끌의 집’ 이라는 뜻이다. (미 1:10)
13. 선지자 미가의 고향.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가드에 가까워 이렇게 불렸다. (미 1:14)
14. 아모리족이나 가나안족이 숭배했던 우상. 바알의 어머니 여신이었다. (미 5:14)
17. 나무, 철물 등의 재료로 만들어 어떤 곳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 집 주위에 두르기도 하고, 목장이나 농장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도록 설치하기도 한다. (미 7:4)
20. 원한이 있을 정도로 적이 된 사람이나 집단.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캐플릿 가문과 몬태규 가문이 서로 이런 사이였다. (미 2:8)

유아숲

정성과 노력을 담은 유아숲 교재

주님의교회 유아숲(미취학부서)에서는 교역자들이 함께 회의하여 정한 커리큘럼을 따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말씀!” 말씀달력, “바이블 컬러링북”, “주일 어린이 활동 교재”, “절기 교재(사순부활절, 대림성탄절)”, “성경학교 스토리북” 등 지난 20개월간 11권의 교재가 집필되었고 아이들이 주일 예배의 현장과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사용하며 흥미롭게 말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아숲 교역자들은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며 6개월 전 다음 학기를 위한 커리큘럼 회의와 집필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기부부터 유치부까지 하나로 보여주는 주제 그림과 활동 교재의 내용이 ‘어떻게 효과적인 콘텐츠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고 여러 번 수정하여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원고를 집필하고 활동을 기획하며 편집 디자인을 직접 담당한 유아숲 교재를 선생님 부모님들이 잘 활용하는 모습, 즐겁게 말씀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보람과 기쁨은 더욱 배가되고 이 소중한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정성 들여 만든 좋은 자료들이 주님의교회 유아숲이 아닌 다른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던 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아숲 홈페이지(www.pclkids.co.kr)의 ‘유아숲 북코너’에 소개된 유아숲 교재를 보고 정식 출판 의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본 교회 교단이 속해있는 교단 출판사인 한국장로교출판사와 함께 유아숲 콘텐츠를 활용하여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의 현장과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출판하기 위해 출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유아숲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담은 유아숲 교재가 더 많은 곳에서 쓰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작고 소중한 유아숲 아이들과 한국교회의 미취학 아이들이 직접 펼쳐보게 될 앞으로의 교재들도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제작에 힘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교회일정

- 10/2 (수) 교구 연합수요기도회(6교구)
- 10/12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 10/13 (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입교 및 세례 교육

-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 일시 : 9/29~10/20(4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초등부실(3층)
- 접수 : 1층 안내데스크
- 문의 : 오광순 안수집사(010.3351.9471)

2.주님과함께 10월호 큐티책 판매

- 현장 : 9/22, 9/29(1층 로비)
- 상시 : 무인판매대

모집합니다

1. 해피맘스쿨 10기

- 주제 : 사랑하는 엄마, 잠언태교
- 기간 : 10/8~11/26(매주 화) 오후 1~2시
- 장소 : 온라인(ZOOM)
- 모집 : 9/29(주일)까지
- 문의 : 김은선 목사(010.4773.8186)

2. 임마누엘 찬양대(4부)

- 문의 : 이성규 안수집사(010.5503.5512)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